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고령군 설립 촉구

고령군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 고분수의 57%, 전체 고분군 면적의 44%를 가지고 있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설립의 최적지이다.

유네스코는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고분군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다. 그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면서 통합기구 설립 입지 선정 지표로 인구 규모, 지방세 규모, 지역별 총생산,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관리 이동 거리를 입지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고분군의 수나 면적 규모는 빠져있다. 고령군의회는 신뢰성을 상실한 지표를 기준으로 입지를 선정한 것을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

금관가야의 중심인 경남 김해에는 가야와 관련된 기관이 아주 많다. 그러나 후기 가야사회를 주도했던 대가야의 중심지인 고령군에는 가야와 관련된 기관이 전무하다.

더 이상 경남 중심의 금관가야에만 치우치지 말고 가야문화권 전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고령군에 통합관리 기구가 설치되어야한다.

이에, 고령군의회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봉합하고 함께 통합관리기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고령군의회는 신뢰성을 상실한 지표를 기준으로 입지를 선정한 통합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표명한다.

하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설립위치를 서열화하여 지자체 간 불화를 야기시키는 용역 결과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가유산청은 통합관리기구의 설립 지역이 형평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라.

2024년 8월 27일

고령군의회